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 및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안숙*, 김혜경¹
¹중원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nd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An-Sook Park^{1*}, Hey-Kyoung Kim¹

¹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전공선택동기 및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건강한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충청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한 242명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였고, 배부된 250부 중 242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순으로 영향력이 있었고, 전공만족도 중 수업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가장 컸다. 설명력은 38%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만족도를 고려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otivation for the selection of major and satisfaction in the major on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to present basic data to assist in the healthy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 survey was given to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Chungcheong cities from October 13 to October 27, 2015 of 25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distributed, a total of 242 copies were in the final analysis. For data analysis, SPSS 21.0 for Windows was used. As a result, there were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of university students was affected by the personal motivation, social motivation for the selection of major with the largest effect being class satisfaction. The explanatory power was 38%.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s and counselling students considering class satisfaction for improving the adaption to university life.

Keywords : Adaption, Major, Motivation, Universi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해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은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 불황에 따른 직업관의 변화는 전공 선택의 변화를 초래하여 누구나 선호하는 직업군에

몸 담기위한 수동적 선택을 하게되었다. 또한 '스펙쌓기'라 불리는 구직경력 준비에 몰두해야하는 대학교육은 [1] 입시위주의 교육에 오래 노출되어온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능동적 경험의 기회를 주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전공 선택 후에 진로에 대한 좌절과 갈등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증명하듯 우리나라 대학생의 상당수는 입학후에

*Corresponding Author : An-Sook Park(Jungwon University)

Tel: +82-10-6357-6469 email: pkase2001@jwu.ac.kr

Received December 9, 2015

Accepted February 4, 2016

Revised (1st January 4, 2016, 2nd January 14, 2016)

Published February 29, 2016

휴학, 복학, 자퇴, 전과, 편입, 재입학을 통해 자신의 전공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2]. 또한 대학의 명성이나 학과 인지도로 전공을 결정한 경우에도 적성을 고려한 경우보다 진로변경의사가 높았다[3]. 이렇듯 자신의 흥미나 관심도를 중시하여 전공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잘 적응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지위나 성역할을 중심으로 한 선택의 경우에는 적응 과정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4]. 즉 대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의 원인이 내재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내재적 요인에 의해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연[5]과 한예정[6]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전공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재능, 장래직업과 일치하기 때문에 전공의 교과내용에 흥미와 가치를 느끼게 되면서 전공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져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 수준이 높아지며 이는 긍정적인 대학생활로 적응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된다[7]. 하지만 학업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개인적 동기로 능동적 선택을 한 전공이라 해도 대학생활 적응이 모두 긍정적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 장래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심혜란 [9]의 연구에서도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순서를 살펴보면 장래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졸업 후 진로나 취업의 길이 안정적인 전공계열 학생들보다는 다른 계열의 학생들이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으며 이로 인해 대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8]. 졸업 후 진로나 취업 등의 사회적 요구에만 맞춰진 수동적 전공선택의 경우는 개인적 요인으로 능동적 전공 선택을 하지 못했음에 대한 갈등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개인적 동기만으로는 능동적 선택을 한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와 부딪히게 되면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도 예상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대학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켜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거나, 자신에게 맞도록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대응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9].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침체 등으로 대학 졸업자의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으면, 자신의 흥미나 관심도를 고려한 신중한 전공 선택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10], 전공한 전공자체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개발과 학생들의 진

공과 성향에 맞는 상담 및 취업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전공 선택동기와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와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건강한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및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의 하부요인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의 하부요인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적응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및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과 충청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총 250명을 편의표집하였다. 표본수는 Faul, Erdfelder, Buchner와 Lang[11]이 개발한 G-power 3.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으로 했을 때 최소 표본수 166명으로 산정되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인 242명은 통계적 검정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전공선택동기

전공선택동기 척도는 정보연[5]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적 동기 3문항, 사회적 동기 4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개인적 동기 .76, 사회적 동기 .5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동기 .89, 사회적 동기 .58이고, 전공선택동기는 .62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 척도는 장문영[12], 김혜주[13]의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를 김희영[14]이 수정, 보완한 것을 연구자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교과만족 6문항, 수업만족 3문항, 관계만족 3문항, 인식만족 3문항으로 총 15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6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3.3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Baker & Sirky[15]가 제작한 대학적응도검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현진원[16]이 번안한 것을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업적 적응 5문항, 사회적 적응 6문항, 개인정서적 적응 4문항, 대학환경 적응 5문항으로 총 20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고, 반대질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이며,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동의서와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다. 연구를 허락한 후에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장 될 것이고,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됨을 구두와 서면을 통해 알렸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0분-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후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계처리 시 개인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다. 자료의 탈락과 손실을 대비하여 250부의 자료를 배부하였고, 그 중 불성실하게 답변하였거나 부적절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4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 Program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대학 생활 적응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입(Enter)방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242명의 대학생 성별은 남학생이 55.8%, 여학생이 44.2%였고, 평균연령은 20.6세며 1학년이 72%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15%, 이공계열 36.4%, 예체능계열 11.2%이고 의료보건계열은 36.8%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N=242)

	Categories	n(%)
Gender	Male	135(55.8)
	Female	107(44.2)
Grade (Age mean 20.6)	Grade 1	173(71.5)
	Grade 2	53(21.9)
	Grade 3	11(4.5)
	Grade 4	5(2.1)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8(15.7)
	Science and Engineering	88(36.4)
	Creative and Performing Arts and Sports	27(11.2)
	Health Science	89(36.8)

3.2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및 대 학생활 적응의 정도

대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는 5점을 만점으로 평균 3.14±0.49점이었고, 하위요인 중에는 개인적 동기가 3.54±0.89점으로 사회적 동기 2.87±0.5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는 5점 만점으로 평균 3.37±0.64점이었고, 하위 요인 중에서는 인식만족 3.61±0.80점, 교과만족 3.35±0.71점, 관계만족 3.26±0.88점이며, 수업만족 3.26±0.7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은 5점을 만점으로 평균 3.27±0.43점, 하위요인은 대학 환경적응 3.47±0.59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정서적응 3.23±0.58점, 사회적 적응 3.23±0.55점, 학업적 적응 3.15±0.62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otivation for Major, Satisfaction in Major and Adaption of University Life of the University Students.

(N=242)

Variables(Mean±SD)	Mean of Item Mean±SD	Cronbach alpha
Motivation for selection of major (31.39±4.89)	3.14±0.49	.617
Personal Motivation	3.54±0.89	
Social Motivation	2.87±0.58	
Satisfaction in major (50.51±9.59)	3.37±0.64	.911
Curriculum satisfaction	3.35±0.71	
Class satisfaction	3.26±0.76	
Relationship satisfaction	3.26±0.88	
Recognition satisfaction	3.61±0.80	
Adaption of University life (65.40±8.60)	3.27±0.43	.763
Adaption of study	3.15±0.62	
Adaption of society	3.23±0.55	
Adaption of personal emotion	3.23±0.58	
Adaption of environment of university	3.47±0.59	

3.3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대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는 여성은 개인적 동기(3.66±0.80)가 사회적 동기(2.92±0.56)보다 높았고, 남성은 개인적 동기(3.45±0.95)가 사회적 동기(2.83±0.60)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는 3학년의 경우 개인적 동기가 높고, 4학년의 경우는 사회적 동기가 높으며, 개인적 동기가 높았던 3학년이 전공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동기가 높았던 4학년이 대학생활 적응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학생의 전공에 따르면, 예체능계열(4.11±0.70)은 의료보건계열(3.59±0.91), 인문사회계열(3.43±0.88), 이공계열(3.38±0.86)보다 개인적 동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26, p=.002). 반면 사회적 동기는 의료보건계열(3.05±0.59)이 가장 높고 예체능계열(2.65±0.57)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25, p=.002). 전공만족도는 개인적 동기가 높았던 예체능계열(3.86±0.73)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동기가 높았던 의료보건계열(3.51±0.49)이 그 다음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3.31, p<.001). 이공계열(3.14±0.59)은 전공만족도에 있어 Scheffe 사후검증결과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다. 전공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예체능계열(3.52±0.47), 인문사회계열(3.26±0.44), 의료보건계열(3.25±0.43), 이공계열(3.22±0.3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55, p=.015)(Table 3).

3.4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개인적 동기(r=.571, p<.001) 및 전공만족도(r=.520, p<.001)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동기(r=-.153, p=.017)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공 선택 동기 중 개인적 동기는 전공만족도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571, p<.001) (Table 4).

Table 3. Differences of Motivation for major, Satisfaction in Major and Adaption of University school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students.

(N=242)

Categories	Motivation for selection of major				Satisfaction in major		Adaption of university life		
	Personal Motivation		Social Motivation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3.45±0.95	-1.79	2.83±0.60	-1.19	3.31±0.72	-1.54	3.25±0.46	-.63
	Female	3.66±0.80	(.075)	2.92±0.56	(.232)	3.44±0.51	(.125)	3.29±0.39	(.529)
Grade	Grade 1	3.57±0.91		2.86±0.59		3.35±0.67		3.26±0.43	
	Grade 2	3.37±0.85	1.33	2.94±0.49	.77	3.32±0.49	1.23	3.25±0.40	1.65
	Grade 3	3.89±0.83	(.267)	2.67±0.85	(.511)	3.66±0.75	(.300)	3.45±0.46	(.180)
	Grade 4	3.65±0.72		2.97±0.48		3.65±0.45		3.59±0.38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43±0.88b		2.77±0.71ab		3.20±0.69c		3.26±0.44b	
	Science and Engineering	3.38±0.86b	5.26 (.002)	2.79±0.47ab	5.25 (.002)	3.14±0.59c	13.31 (.000)	3.22±0.39b	3.55 (.015)
	Creative and Performing Arts and Sports	4.11±0.70a	a>b	2.65±0.57b	a>b	3.86±0.73a	a>b>c	3.52±0.47a	a>b
	Health Science	3.59±0.91b		3.05±0.59a		3.51±0.49b		3.25±0.43b	

· Scheffe test

Table 4. Correlation Matrix of Variables

(N=242)

Variables	Personal Motivation	Social Motivation	Satisfaction in major
	r(p)		
Satisfaction in major	.571(<.001)		
Adaption of University life	.467(<.001)	-.153(.017)	.520(<.001)

3.5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정도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입(Enter)방식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전공 변수 및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전공 선택 동기와 전공만족도변수를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을 준거변수로 가변수(더미변수)처리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잔차분석, 영향력진단,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차분석으로 Du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1.834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관성이 없고 독립성임을 알 수 있었다. 영향력 진단을 위한 Cook's Distance 검정결과 모든 측정치가 .000~.107로 나타나 1.0이상인 개체가 없어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346~.887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는 1.127~2.893으로 모두 10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은 배제되었다.

전공, 전공 선택 동기, 전공만족도를 예측변수로 하여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5.51,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adj. R2)=.38(.35)로 회귀모형은 대학생활 적응 총 변화량의 38%를 설명하고 있다.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의 준거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수업만족(B=.31, p<.001), 개인적동기(B=.22, p<.001), 사회적동기(B=-.16, p=.003)순이었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Adaption in University Life (N=242)

Variable	B	SE	B	t	p	R2	Adjusted R2	F(p)
Constant	2.28	.17		13.32	.000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cience and Engineering	-.009	.067	-.010	-1.131	.896		
	Creative and Performing Arts and Sports	-.011	.091	-.008	-1.124	.901		
	Health Science	-.099	.071	-.112	-1.400	.163		
Motivation for selection of major	Personal motivation	.106	.033	.219	3.230	<.001	.38	15.51 (<.001)
	Social motivation	-.120	.040	-.164	-2.973	.003		
Satisfaction in major	Curriculum satisfaction	.060	.054	.098	1.107	.269		
	Class satisfaction	.172	.042	.306	4.114	<.001		
	Relationship satisfaction	-.001	.033	-.002	-.024	.981		
	Recognition satisfaction	.066	.042	.122	1.587	.114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및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건강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는 평균 3.14점이었고, 하위요인별 점수는 개인적 동기가 3.54점, 사회적 동기의 평균은 2.87점 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 모두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3학년들이 개인적 동기가 높는데 비해 사회적 동기는 3학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동기는 곧 사회로 나가야 하는 4학년들에게서 가장 높았다. 전공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중 개인적 동기에 있어서는 예체능계열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연[5]의 연구와 일치하지만, 의료보건계열이 가장 높았던 사회적 동기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송윤정[17]의 연구결과 전공선택동기 중 개인적 동기 즉, 내재적 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사회적 동기 즉, 외재적 동기는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환경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정서적 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적 적응의 경우 개인적 동기에 사회적 동기를 첨가할 경우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이 1%증가하는 결과를 보

였다[17]. 이는 개인적 전공선택동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적응수준이 높아지는 결과와 일치한다.

전공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는 대학생 개개인의 학교 생활 적응과 진로준비에 큰 영향을 주는데, 전공불만족은 결국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한다[18].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본 연구에서 평균 3.37점이었으며, 하위요인별 점수의 순위는 인식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인영[19]의 연구와 일치하며, 교과만족이 가장 높았던 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다[1]. 그리고 교과만족도, 관계만족도, 수업만족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장래문제, 경제문제, 학업문제, 가치관 문제등의 순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비슷하다[20, 21].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공 만족도는 더 높았으며, 개인적 동기가 가장 높았던 3학년과 사회적 동기가 높고 곧 사회로 나가야 하는 4학년이 1학년과 2학년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개인적 동기가 높았던 예체능계열 대학생과 사회적 동기가 높았던 의료보건계열 대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 대학생들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은 평균 3.27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점수 순위는 대학환경적응, 개인정서적응, 사회적 적응이며, 학업적 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 스트레스 요인 중 학업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데[22], 이러한 결과는 현대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의해 개인적 동기가 아닌 치열한 취업 경쟁으로 인해 비교적 취업이 용이하다고 여겨지는 전공학과에 대한 사회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았으며, 대학생활 적응은 4학년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22, 23]. 대학생활 적응이 낮은 대학생은 사회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만족도가 높았던 의료보건계열 학생들이었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은구[2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SNS의 페이스북 사용[22], 심리적 독립, 성인애착[25], 사회적지지[26], 산타툰[27]과 김진희[2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스트레스[27, 28]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수업에 대한 만족도이며, 개인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 사회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송윤정[17]의 연구결과에서 대학생활 적응 중 학업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개인적동기와 사회적 동기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사회적 동기로 전공선택시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진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와도 일치한다[29]. 또한 이는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으려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함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지만 사회적 동기보다는 개인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했을 경우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전공선택동기 및 전공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중에서도 수업만족도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므로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수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과과정에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과 충청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총 242명을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 및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공선택동기의 개인적 동

기와 전공만족도의 변수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개인적 동기 및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의 각 변수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동기와 대학생활 적응의 각 변수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 중 수업만족, 전공선택 동기 중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순으로 영향력이 있었고, 설명력은 38%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수업만족 및 개인적, 사회적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중에서도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므로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만족도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서울과 충청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전공별 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업만족,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외에 다른 변수들을 찾아내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셋째,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줬던 수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E. K. Byun., S. H. Park.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on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 pp 323-330.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323>
- [2] B. W. Seo. The Effects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on Vocation Choice Factor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3, No. 2, pp 65-81. 2013.
- [3] M. H. Hwang. A compromise processing in career decision-making - Focusing on universities and

- academic sele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2.
- [4] Gottfredson, L. S.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179-232), San Francisco: Jossey-Bass. 1996.
- [5] B. Y. Jeong. The Effects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on Vocation Choice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09.
- [6] Y. J. Han.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 Targeted on the university students who specialized in cooking/dining relate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2014.
- [7] H. S. Kim., O. J. Kim., M. H. Kang and J. Y. Cho. Differences in Department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Meaningfulness in Life Among Regional Privat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1(2),267-282. 2010.
- [8] H. R. Sim.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ors of Students in Different Major Fields and Adaptations to College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3.
- [9] K. R. Lee, J. K. Park. Conditions of Adjustment to University and Perception to the Social Support of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 9, No. 1, pp. 289-308. 2007.
- [10] S. H. Shin.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and Self-esteem of Health College Studne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0(4), 663-670. 2012.
- [11]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Lang, A.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41, pp. 1149-1160. 2009. DOI: <http://dx.doi.org/10.3758/BRM.41.4.1149>
- [12] M. Y. Chang.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n their majors. attributional style, and career decision le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5.
- [13] H. J. Kim.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007.
- [14] H. Y. Kim. A study on the weight control and eating disorder characteristics of women undergraduate of dance maj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1.
- [15] Baker, R. W., & Sirky, B(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1, 179-189.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31.2.179>
- [16] J. W. Hyeon.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evaluation levels to perform tas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1992.
- [17] Y. J. SONG.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2013.
- [18] M. R. Lee. The Relationships among Major Satisfaction, Ego-Resiliency and Job Prepar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po University, 2014.
- [19] I. Y. Cho.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pp. 2937-2945,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5.2937>
- [20] J. S. Baek.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Free Improvisation and Projective Listening on University Students'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07.
- [21] K. H. Kim. Analysis of Moderated Effects of Acceptance and Committed Action in the Relation between College Lif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4.
- [22] H. J. Lee., H. K. Kim. The Effect of Intoxication in SNS and Stress of university life on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6). pp. 3994-3953,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6.3944>
- [23] H. S. Yang. The Influence of Sport Clubs Participation on College Life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 Dong University, 2010.
- [24] E. K. Choi. The Effects on Internet Addiction and Impulsiveness on School Adjust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2007.
- [25] W. G. Jeong. Effect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ult Attachment on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Life; Using perceived social support level as a medi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2014.
- [26] M. C. Kang. Students wh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with the social support self-elasticity and the impact on college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13.
- [27] Sandar, Tun. A Study on the Factors which Influence Southeast Asian College Student's Adaption to Korean's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2012.
- [28] J. H.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2012.
- [29] S. M. Lee., J. H. Cho. A study on Career identity, Satisfaction in major,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for students of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at a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0). pp. 6698-6707. 2015.

박 안 숙(An-Sook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11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 건강증진, 직무만족

김 혜 경(Hey-Kyoung Kim)

[정회원]



- 2009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임상사례관리학석사)
- 2013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임상사례연구, 정신건강, 상담학